

■ 주요 기사

○ 대선주자 일자리 공약 관련 (3건)

중앙	문재인의 '공공일자리 공약' 비판한 박병원 경총 회장 “돈 쓰는 일자리 오래 못 가”
동아	수조원 예산 들여 공무원 양산? 세금 내는 민간 체력만 고갈
	“공공일자리 공약은 시혜성 정책… 민간서 일자리 만들게 도와줘야”

○ 철도공사, 노조 징계 관련 (2건)

한겨레	‘박근혜 퇴진’ 주장도 징계사유?…철도공사, 노조간부 255명 중징계 착수
경향	철도공사 “파업 노조원 255명 징계” 강경

○ 제조업 취업자 감소 (1건)

조선	제조업 취업자 6개월째 줄어
----	---------------------------------

■ 주요 칼럼 · 사실

○ 4차 산업혁명 관련 (1건)

한겨레	[시론] 4차 산업혁명 노동 중심으로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고용 복지	제목	제조업 취업자 6개월째 줄어 B2면
		내용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제조업 취업자는 443만 7000명으로 전년 12월보다 11만5000명이 감소. 7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제목	기업 44%, 올해 채용 규모 줄인다 B7면
		내용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상장사 918곳에 문의한 결과,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힌 기업은 45%에 그침. 응답한 기업 중 지난해 채용을 진행한 곳은 68.6%
중앙	노동	제목	주 51시간 30분 근무하고 월급 175만원 ... 장시간 노동, 저임금 시달리는 대구 청년 A21면
		내용	청년노조·비영리단체인 '대구청년유니온'이 39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 802명의 평균 월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다.
	고용 복지	제목	문재인의 '공공일자리 공약' 비판한 박병원 경총 회장 "돈 쓰는 일자리 오래 못 가" A8면
		내용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일침을 냈다
동아	고용 복지	제목	수조원 예산 들여 공무원 양산? 세금 내는 민간 체력만 고갈 A3면
		내용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절벽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앞다퉀 일자리·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자원 조달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목	"공공일자리 공약은 시혜성 정책... 민간서 일자리 만들게 도와줘야" A3면
		내용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일자리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을 과거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사회의 성장동력과 성과를 만들어 일자리로 퍼지게 해야지, 공공일자리 같은 시혜성 정책으로는 국가 재정만 파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한겨레	노동	제목	'박근혜 퇴진' 주장도 징계사유?...철도공사, 노조간부 255명 중징계 착수 A13면
		내용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해 9월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255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공사는 또 징계사유로 노조의 '정치적 색채'도 거론
	고용 복지	제목	[시론] 4차 산업혁명 노동 중심으로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 A25면
		내용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기업과 노동자의 공동 발전에 활용하려면, 산업 현장에서 노사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 무엇보다 노동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선,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매체명	주 제	내 용	
경향	노동	제목	철도공사 “파업 노조원 255명 징계” 강경 9면
		내용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도입에 반발해 지난해 74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255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제목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3)수익 급급, 붕어빵 게임 양산… ‘아타리 쇼크’ 남 일 아니다 15면
		내용	현재 한국의 상황과 아타리 쇼크 당시 미국 게임업계의 상황은 분명 다르지만, 닮은 점이 많다.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게임산업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에만 의지한 차별성 없는 게임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목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시민단체 “게임 개발자 장시간 노동 안 하게 규제” “산재 조사 철저히 해야 15면
내용	게임업계의 노동조건은 모바일 게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됐다. 게임의 유행 주기가 짧아지면서 개발 기간이 단축됐고, 노동자들은 축소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추가 근무를 이어가야 했다		

<끝>